작지만 강한 농업인과 '맛있는 만남'

농진청, 24~27일 '강소농대전'… 코로나19 확산 방지 위해 대부분 온라인으로

농촌진흥청(청장 허태웅)은 24일부터 27일까지 서울 강남구 코엑스 전시관 B홀과 온라인(유튜브 농촌진흥청 채널)에서 '2021년 제7회 강소농(強小農)대전'(이하 행사)을 연다.

'작지만 강한 농업인'을 뜻하는 강소농은 규모는 작지만 끊임없는 역량개발과 차별화된 경쟁력을 갖추고 경영혁신을 지속적으로 실천하는 중·소규모의 농업경영체를 말한다.

이 행사는 강소농에게 온·오프라인(현실공간) 농산물 유통시장 참여기회를 제공하여 소비자와 접점을 확대하고, 대형 유통업체의 전문 구매자(바이어)에게 상품에 대한 전문상담(컨설팅)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판로 확대와 유통 역량 강화를 지원하기 위해 농촌진흥청이 2015년부터 매년 개최하고 있다.

올해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각 지역을 대표하는 강소농과 자율모임체의 홍보관 운영을 제외하고 대부분 온라인으로 전환해 치러진다.

행사 기간 동안 지역별 우수 강소농과 자율모임체가 생산한 농산물·가공품을 할인된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는 실시간 소통 판매(라이브커머스)가 매일 2회 '네이버 쇼핑라이브'로 진행된다.

또한 전자 상거래 거래터(플랫폼) '컨비니'를 통해 '강소농이 생산하는 믿을 수 있는 먹거리'를 주제로 전국 70여 곳의 농업경영체가 생산한 제품을 판매하는 기획전을 연다.

강소농이 생산한 상품에 내실을 기하고 판로 확대를 지원하기 위해 백화점, 대형마트, 온라인 쇼핑몰 등 국내 유통기업 전문 구매자들과 함께하는 일대일 온라인 상담도 진행한다.

부대행사로 마련된 우수 강소농과 자율모임체의 성공비결을 공유하는 이야기쇼, 요리 전문가와 함께하는 요리교실, 농업·농촌 현안 토론회 등은 영상으로 볼 수 있다.

이번 행사는 '제16회 서울국제식품산업대전(2021 코엑스 푸드위크)'와 연계해 열린다.

관람객은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고, 입장 전 휴대전화 정보무늬(QR)를 이용한 전자출입명부와 당일 문진표 작성, 발열여부 확인, 손 및 전신 소독, 비닐장갑 착용 등을 해야 한다.

한편, 농촌진흥청은 우리나라 농가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중·소가족농을 차별화된 경쟁력을 갖춘 농업경영체로 육성하여 농가소득 향상과 지속가능한 농업의 성장 동력을 만들기 위해 2011년부터 '강소농 육성사업'을 시작했다.

'창업교육-창업지도-창업컨설팅' 등 각 과정을 농업경영체의 성장단계별로 세분화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각 농가에게 경영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농가 경영상태 진단과 부족한 역량에 대한 교육, 기술력을 높이기 위한 전문상담 지원 등을 진행하고 있다.

이렇게 육성된 강소농들은 현재 8만 6,772명에 달하며 자신만의 창의적인 생각과 차별화된 전략을 수립하고 실천하여 소득향상, 경쟁력 확보 등의 성과를 올리고 있다.

허태웅 농촌진흥청장은 "올해 강소농대전은 오프라인 박람회와 온라인 행사의 장점을 살린 형태로 진행하며, 앞으로 농업경영체의 지속가능한 경영을 위한 역량 강화와 강소농 육성사업의 내실을 기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김윤상 기자

전국우정노조 전북지방본부는 최근 전북지방우정청 3층 대회의실에서 2021년도 전북 여성위원 정기총회를 개최했다고 22일 밝혔다.

'우리가 몰랐던 노동이야기'

전북우정노조 전북본부, 여성위원 정기총회

전국우정노조 전북지방본부(위원장 이행무)는 최근 전북지방우정청 3층 대회의실에서 2021년도 전북 여성위원(여성국장 고성숙) 정기총회를 개최했다고 22일 밝혔다.

전북지방본부 여성위원회는 전북지역 우체국에 근무하는 여성 조합원들이 함께해온 단체로서 1971년 6월 8일 출범한 이래 50여 년을 여성 조합원들의 처우개선 및 복지증진을 위해 노력해왔으며, 매년 '사회공헌활동'을 통해 주변의 소외된 이웃과 함께 하는 등 우리 사회의 그늘진 곳을 밝히는 가로등 역할을 해왔다.

이번 전북지방본부 여성위원정기총회는 전국우정노조 오수정 여성본부장의 '우리가 몰랐던 노동이야기'라는 주제로 노동조합과 관련한 강의가 있었으며, 위원장과의 대화 시간을 통해 현업 일선에서 고객을 상대하며 느꼈던 애로사항이나 근무하며 느꼈던 불편사항을 이야기하고 전북지방본부 이행무 위원장과 함께 해결점을 찾아보는 시간을 가졌다.

끝으로 고성숙 여성국장은 전북지방본부 여성위원들이 일선 조합원들과 노동조합을 이어주는 다리 역할을 해주길 바란다며, 고객들과의 접점에서 우체국을 대표하는 사람이란 자부심을 가지고 항상 최선을 다해주시길 당부한다는 말로 2021년도 전북지방본부 여성위원정기총회를 마무리 했다.

/김윤상기자

품질 '우수' 생산제품 미래 성장 가능성 ↑

도, 내년 도지사 인증상품 농축수산물 등 21개 선정

전북도가 도내 생산제품 중 품질이 우수하고, 미래 성장 가능성이 높은 21개 상품을 '2022년 전북도지사인증상품'으로 최종 선정했다.

도는 지난 19일 전북도지사인증상품 선정관리위원회 최종 회의를 통해 39개 상품에 대한 서류 및 현지심사 등 면밀한 검증과 심사 평가를 통해 전북도지사인증상품 21개를 최종 선정했다고 밝혔다.

글로벌 시대에 걸맞은 브랜드 이미지와 경쟁력을 갖춘 2022년 전북도지사인증상품은 분야별로는 농축수산물 7개, 전통 가공식품 12개, 공산품 2개 등이다.

지역별로는 전주시 3개, 군산시 4개, 익산시 3개, 정읍시 2개, 남원시 2개, 무주군 1개, 임실군 1개, 순창군 1개, 고창군 4개 상품이 선정됐다.

선정된 21개 상품은 2022년 1월부터 2024년 12월까지 3년간 인증이 부여된다.

전북도 관계자는 "새롭게 선정된 전북도지사인증상품을 대상으로 특판행사, 전북우수상품관 입점 등의 마케팅을 지원해 전북도 대표상품으로 육성하겠다"고 말했다. /유호상 기자

농촌진흥청은 '무기질비료 절감기술 개발 및 현장보급 특별팀(TF)'을 구성하고 22일 대책회의를 개최했다.

무기질비료 절감·적정 사용 영농기술 보급 강화

농진청, 특별팀 구성 대책회의 열고 대체비료 활용 등 논의

농촌진흥청(청장 허태웅)은 요소 등 비료 원자재 부족 우려로 인한 영농현장의 어려움 해소를 위해 무기질비료 절감·적정 사용을 위한 영농기술 보급을 강화할 방침이다.

이에 '무기질비료 절감기술 개발 및 현장보급 특별팀(TF)'을 구성하고 22일 대책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식량작물, 과수, 채소 등 작목별로 무기질비료 사용량을 줄이는 방안과 대체비료 활용 등에 관해 논의했다.

특히 ▲재배면적이 넓고 무기질비료 요구도가 높은 작물에 관한 대응 방안 ▲재배양식에 따른 무기질비료 적정량 사용을 위한 농업인 교육 ▲적정 비료사용을 위한 시·군 농업기술센터 종합분석실의 토양검정 확대 방안에 대해 집중 검토했다.

이와 함께 ▲무기질비료 부족이 농산물 생산에 미치는 영향 분석 ▲무기질비료 대체 및 절감 연구개발 기술 발굴 ▲현장 수요기술 등 중장기 연구개발도 추진할 계획이다.

농촌진흥청 농촌지원국 이천일 국장(TF 단장)은 "적정 비료 사용량 준수를 위한 농업인 인지도제고와 기술보급 등에 최선을 다하겠다."라며, "영농현장에서도 적정 비료 사용 준수를 위한 노력을 당부 드린다."라고 말했다.

/김윤상기자

전북은행 3기 생생톡 고객자문단 모집

JB금융그룹 전북은행(은행장 서한국)은 22일부터 '생생톡(生生Talk) 고객자문단' 3기를 모집한다. 전북은행 생생톡 고객자문단은 고객과 함께 전북은행의 상품, 서비스, 프로세스 등 금융 개선사항을 발굴하고 고객의 의견을 적극 청취하기 위한 소비자 패널 제도이다.

그동안 전북은행은 생생톡 고객자문단이 수행한 신상품 출시 관련 소비자 영향 분석 자료 등을 활용하여 소비자 보호 정책수립 등 금융 소비자들의 의견에 귀 기울여 왔다.

고객자문단 신청은 전북은행의 금융상품 및 서비스에 관심이 많은 고객, 정기모임 참석 및 온·오프라인 활동이 가능하고 스마트기기 활용 및 MS Office를 이용한 문서 작성이 가능한 고객이라면 누구나 참여 가능하다.

생생톡 고객자문단 3기는 2022년 1월부터 12월까지 1년간 전북은행에서 제시한 과제 수행 및 금융상품에 대한 아이디어를 제공하고, 분기당 30만원 활동비(제세공과금 본인 부담)를 지급받게 된다.

고객자문단 참여 희망자의 신청서 접수는 다음달 5일까지 이메일(jbbpanel@jbbank.co.kr)을 통해 접수하며 자세한 내용은 전북은행 홈페이지(www.jbbank.co.kr)를 참조하면 된다.

/김윤상기자

10월 전북 수출 7억57만 달러

전년비 38.% 증가… 올해 세번째 7억불 이상 수출 달성

2021년 10월 전라북도 수출은 전년 동월 대비 38%가 증가한 7억57만 달러로 집계되었다. 월별 수출 금액이 7억불을 넘어선 건 올해 들어 세 번째이며, 지난 2년간은 월 최대 수출실적이 6억불에도 미치지 못했기에 그 의미가 더욱 크다.

한국무역협회 전북지역본부(본부장 이강일)가 발표한 '2021년 10월 전라북도 무역동향'에 따르면, 전북지역 9월 수출은 전년 동월 대비 38%가 증가한 7억 57만 달러, 수입은 37.9% 증가한 5억 3,487만 달러로 집계됐으며 무역수지는 1억6,569만 달러 흑자를 기록하였다.

품목별로는 합성수지, 자동차, 농약및의약품이 1~3위 수출 품목으로 기록되었다. 최대 수출실적을 기록한 합성수지($5,886만, 56.7%)에 이어 자동차($5,700만, 110.8%), 농약및의약품($5,387만, 189.8%), 동제품($5,199만, 20.0%), 정밀화학원료($4,467만, 4.5%) 등이 그 뒤를 이었다. 합성수지의 경우 중국, 미국의 수요 증가로 전년대비 각각 70%, 237%의 수출이 증가했으며, 자동차는 베트남으로의 수출이 290% 증가하며 수출 상승세를 이끌었다.

국가별로는 중국($14,172만, 17.1%), 미국($12,882만, 42.1%), 베트남($4,593만, 60.0%), 브라질($3,803만, 551.3%), 일본($3,618만, 23.9%) 등이 5대 수출 상대국으로 수출이 모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브라질은 코로나19로 중단됐던 농약 제품의 수출이 급증($3,322만)하며 5대 수출국으로 이름을 올렸다.

이강일 한국무역협회 전북지역본부장은"전북 수출은 올해 10월까지 누적 기준 35.8%가 증가해 64억불을 넘어서며 작년 1년 누적 금액인 58억불을 훨씬 상회하게 되었다."라며 "현재 추세라면 연말까지 75억불 이상 수출하며 2018년 수준으로 회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윤상 기자

단계적 일상 회복, 방역수칙 준수가 지름길

공간정보 활용 우수 5건 선정

국토교통부와 LX한국국토정보공사(사장 김정렬?LX공사)가 올해 처음으로 개최한 '제1회 공간정보 활용 경진대회'는 다양한 행정 혁신 사례를 발굴하는 통로로 거듭났다.

LX공사는 정부의 '한국판 뉴딜 2.0'에 따라 공간정보 활용도 제고를 위해 '제1회 공간정보 활용 경진대회'를 개최하고 참신성·완결성·확장성 등을 평가해 우수사례 5건을 선정했다.

지난 9월 14일부터 약 4주간 공모한 이번 대회에는 총 57건이 출품됐으며, 평가결과 '잠자는 행정데이터 리모델링을 위한 쌍방향 공간정보 통합 플랫폼'을 제시한 충남도청(김민정)이 최우수상(상금 200만원)을 수상했다.

김민정 씨는 충남도 및 15개 시·군과 통합 로그인 시스템을 구축해 부서별 산재된 공간정보 데이터를 수집·표준화하여 합리적 정책결정을 지원하는 시스템을 제안, 충남형 뉴딜 사례로 주목을 모았다.

LX공사 박춘수 표준품질처장은 "이번 대회가 공간정보를 생산·구축하는 공공기관에서 다양한 공간정보 활용 우수사례를 발굴하고 공유함으로써 공간정보 활용의 저변을 넓히는 마중물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윤상기자

국토교통부와 LX국토정보공사가 디지털 대전환 대비를 위해 '2021 공간정보표준발전포럼'을 최근 서울 코엑스에서 열었다.

"한국판 뉴딜의 성공 데이터 표준이 관건"

공간정보표준발전포럼

"데이터 표준은 쉽게 말해 잘 만들어서 함께 사용할 수 있는 생태계를 만들자는 뜻입니다. '한국판 뉴딜'을 통해 국민들이 체감하는 스마트한 서비스가 제공되려면 디지털화가 필요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데이터의 수집, 융합, 분석, 활용능력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와 LX한국국토정보공사(사장 김정렬·LX공사)가 디지털 대전환 대비를 위해 마련한 '2021 공간정보표준발전포럼'이 최근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가운데 전문가들은 데이터 표준화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했다. 이날 행사는 디지털 트윈국토 표준 개발, SOC 통합관리 표준화 추진 전략, 3차원 실내공간정보 표준화 방안을 주제로 디지털 트윈국토 시범사업 자치단체, SOC 기반시설 관리기관, 민간기업, 산·학·연 다수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번 포럼에서 홍상기 안양대 교수는 디지털 트윈국토 표준 개발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디지털 트윈국토'는 '한국판 뉴딜'의 10대 과제로서 국토와 동일한 가상세계를 3차원으로 구현해 국토의 지능적 관리와 국민 삶의 맞춤형 문제 해결을 위한 국가 위치기반의 핵심 플랫폼이다.

국토교통부와 LX한국국토정보공사는 올해 '디지털 트윈국토 시범사업' 대상지로 인천광역시, 제주특별자치도 등 10개 지역을 선정하고 다양한 도시·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서비스 제공을 준비 중이다.

홍 교수는 "디지털 트윈국토가 확대되려면 데이터의 상호운용성을 확보해야 한다"며 "내년부터 교통·지형·실내공간·지하시설물 등 데이터에 대한 표준 세트 등을 개발해 데이터 관리체계를 일원화하고 표준화에 앞장설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어 에스프렉텀 김성곤 대표이사는 SOC 시설물 표준화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김 대표이사는 "행정안전부, 국토지리정보원, 국가교통DB센터 등이 만든 도로데이터가 각기 다르듯 어떤 분야에서 어떤 목적으로 수집하느냐에 따라 데이터 셋이 달라진다"며 "어떻게 하면 데이터 표준화 요소를 식별해서 생산부터 활용까지 현명하게 사용하게 할 것인가를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부산대학교 이기준 교수는 "디지털 트윈, 메타버스 등 3차원 신기술이 확산되려면 실내공간정보의 데이터 상호호환을 위한 표준 개발이 중요하고 이는 커뮤니티의 확산을 통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LX공사는 앞으로도 우리나라 공간정보 표준화 방향을 선도하고 다른 산업계와 협력 아래 새로운 미래 표준화 전략 마련과 발전을 위한 논의를 이어갈 방침이다. /김윤상 기자